

농산물 포장재의 중요성과 변화

지난 2002년 기준 농산물 물류비를 보면 포장가공비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비가 농업 GDP대비 약 30% 가량을 차지하는데 이중 포장비가 11%를 차지한다. 국가 물류비에서는 운송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농산물은 포장가공비가 단연 높다. 부피가 크고 균일화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단계별로 선별과 포장하는 사례가 많아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보더라도 포장의 중요성은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홍차선 | 한국농어민신문 식품유통담당기자

포장이란 물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을 시공한 기술 및 시행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기능별로 보면 상품의 보호기능과 수송하역의 편의기능이 중심이 되는 수송포장과 판매촉진과 분배기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포장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송용 골판지 상자의 경우 4도 이상의 다색 인쇄방식을 추구하고 비용이 들어 경제성과는 거리가 멀다. 선진국들이 자연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포장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제품의 선도 유지와 포장의 경제성, 표준규격화, 재활용성 등에 중점을 둔 농산물 포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의 농산물 포장은 물류비 절감과 소비자 맞춤형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산지의 조직화와 물류체계의 발달로 공동브랜드 등이 대폭 증가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요즘 많이 출하되는 딸기를 보면 대부분의 상품이 겉으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용기의 사용이 일반화됐다. 대포장에 1kg 소포장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고 2kg짜리 스티로폴 상자도 수송의 편리성과 간편성 때문에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농산물 포장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산지 수확과 선별, 수송 등에 있어 유리한 포장도 무시 못한다. 딸기포장 중 골판지 상자는 소포장과 화려한 디자인 등이 장점이지만 상자값 자체가 비싼데다 대량 수송시 상품성 손실의 우려가 많다. 스티로폴 상자는 저가에 신선도의 유지나 수송의 유리성, 저장용으로 뛰어나지만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농산물 포장은 파렛타이징 출하에 따라 접합한 외 포장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포장으로 바뀌고 회수와 산물 수송용이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자연친화적 포장재와 기능성 포장재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적 정책목표로 세우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포장재 시장은 상당기간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유통업체 농산물 매장이 품목별 특성과 유통과정,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포장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농산물 포장의 변화를 예고한다.